

글로벌 산업기술 주간브리프

(*GT Weekly Brief*)

2019. 12

제목: 최근 5년간 이스라엘 혁신 기술 부문(요약)

□ 본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발전해 온 이스라엘 기술 혁신 분야의 주요 기술 및 분야를 살펴 보려 한다. 선정된 기술들은 오늘날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술이거나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시장 지배적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의미한다. 분야로는 다수의 기존 업체들과 더불어 2018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부문을 반영했다.

□ 주요 기술

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스라엘은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AI 기술 생태계의 본거지다. 이스라엘에는 다수의 AI 전문 다국적 R&D 센터뿐만 아니라 1,000여개의 전문 업체 및 전 세계 유수의 연구센터가 있다. 해당 기업들로는 핵심 AI 기술 개발업체와 더불어 각 분야 관련 제품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AI 관련 업체들은 이스라엘의 총 혁신 기술업체 중 17%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전체 자금조성 라운드의 32%와 총 자금 조성액의 37%가 AI 관련 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은 이스라엘 AI 업체들이 유치한 자본 측면에서 정점을 기록한 한 해였다. AI 업체들이 유치한 총 자금 22억 4000만 달러는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펀딩 라운드는 AI 활용 업체인 트랙스 이미지 레코그니션(Trax Image Recognition), 이토로(eToro), 시센스(Sisense), 게트(Gett) 뿐만 아니라 AI 프로세서 개발업체인 하바나 AI(Habana.ai) 등 핵심 AI 업체들이 이끌었다.

2018년 말에는 기술 대기업 엔비디아(NVIDIA)와 인텔(Intel)이 이스라엘에 AI 연구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센터는 구글(Google) AI 부문 선임관리자를 역임한 갈 체치크(Gal Chechik) 교수가 이끌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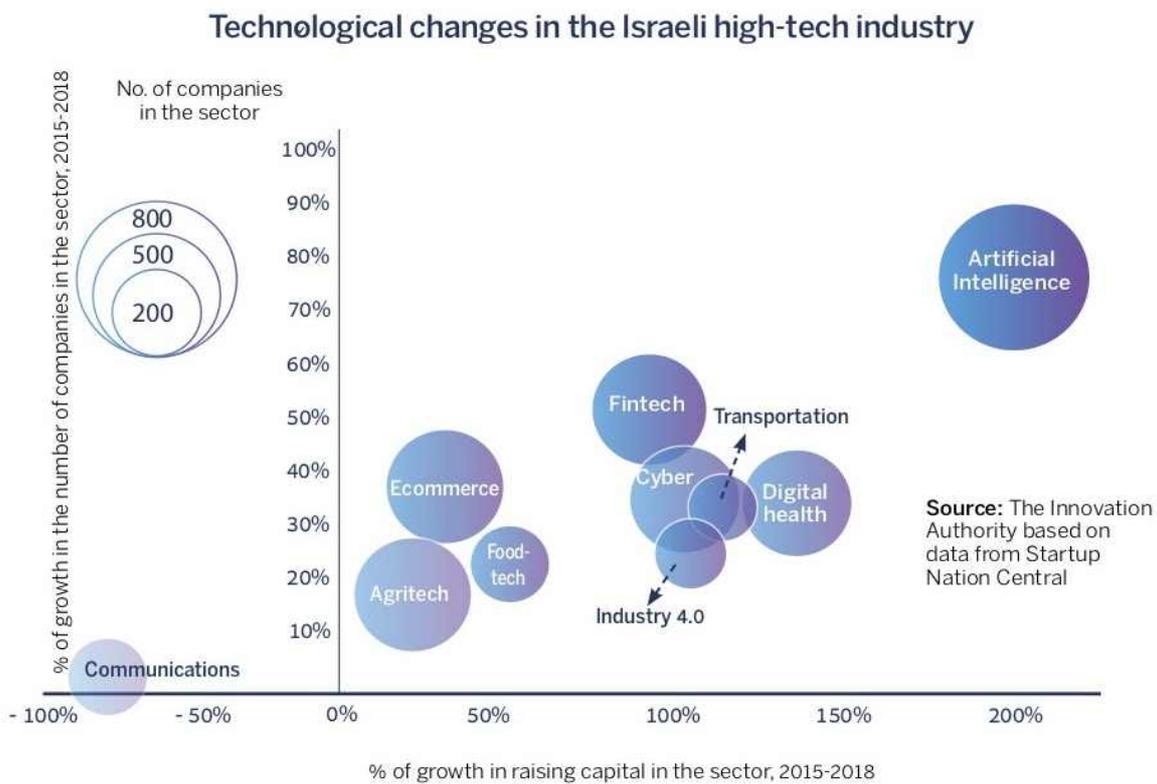
인텔은 테크니온(Technion)과 협업하여 두 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AI 분야 연구에 매진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센터(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설립할 계획이다.

AI 열풍은 이스라엘 기술업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8년에는 이스라엘의 R&D 센터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수많은 주요 AI 제품들을 공개했다.

구글은 자연어대화 수행 프로그램인 구글 듀플렉스(Google Duplex)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부사장이자 구글 이스라엘 R&D 센터장인 요시 마티아스(Yossi Matias)를 비롯하여 엔지니어 야니브 레이바단(Yaniv Leviathan), 마탄 칼만(Matán Kalman)이 진행한 프로그램

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자사의 아주르(Azure)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신제품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봇(Microsoft Healthcare Bot)을 출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 R&D 센터 팀이 개발한 이 서비스는 헬스케어 기관들이 AI 기반 가상 어시스턴스와 챗봇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주제를 놓고 인간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AI 프로그램인 IBM의 프로젝트 디베이터(Project Debater)는 2011년 IBM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에서 노암 슬로님(Noam Slonim)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이파 IBM 리서치 랩 소속인 라닛 아로노프(Ranit Aharonov)와 노암 슬로님의 주도 하에 2018년 6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비공개 언론행사에서 최초 공개되었다.



2015-2018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 변화 (출처 : 이스라엘 혁신청)

② 사물인터넷 및 센서 (IoT & Sensors)



사물인터넷(IoT)은 센서,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등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비롯하여 이들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수집, 교환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IoT는 201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수는 170억 개를 웃돈다. 이 중 70억 개는 순수 IoT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또는 유선전화와 반대)다. IDC의 예측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IoT 기술 지출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이 13.6%에 달한다는 점을 뜻한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아저르와 아마존(Amazon) AWS의 IoT 부문의 2017~2018년 성장률은 각각 93%와 49%를 기록했다.

2018년 이스라엘의 IoT 및 센서 관련 기술은 전체 기업의 10%, 총 펀딩 라운드 수의 16%, 총 자금조성액의 11%를 차지했다. 물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지난 5년간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분야의 업체들이 이끈 펀딩 라운드 수에서 무려 80%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에 주목할 만한 IoT 관련 펀딩 라운드 사례로는 클라로티(Claroty), 스팟인스트(Spotinst), 세타레이(ThetaRay), 사이버비트(Cyberbit)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사이버보안, 제조 및 전사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이다.

③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데이터 오류에 강하고 동료 검토를 거치는 디지털 거래 장부로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가치를 가진 가상의 어떤 것이든 기록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위탁받은 제3자가 필요 없이 디지털 등록 자산을 안전한 암호화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사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PwC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금융기관 중 77%가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는 이미 1개 이상의 블록체인 사업에 착수 중이다. 예컨대 산탄데르 은행(Santander Bank)은 최근 리플(Ripple)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라우팅을 통한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앱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 중 50%는 핀테크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암호화기술에 관한 주요 대학의 사이버보안과 암호화에 관한 연구 및 전문성을 통해 블록체인 솔루션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155개 업체가 활동 중에 있다. 2018년 블록체인 기업들은 벤처 지원 라운드에서 1억 700만 달러의 자금(2014년 850만 달러 대비 상당폭으로 증가)을 유치했으며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2억 9500만 달러를 조성했다. ICO는 대개 주식발행의 부담 없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 역할을 한다.

□ 주요 분야

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이스라엘 기업들은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위협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현지 업계에 대해 갖는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11억 9000만 달러로 마감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47% 증가한 수준으로 117개의 투자 라운드(2017년 대비 거래 규모 39% 증가)에서 유치한 액수다. 이는 전세계 사이버보안 분야 VC 투자 중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8년 말 기준 450개의 사이버보안 기업들이 활동 중이며 이 중 60개는 작년에 설립되었다(2017년 설립 업체 수 75개).

2018년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은 전체 기업의 7%, 총 펀딩 라운드 수의 17%, 총 자금조성액의 20%를 차지했다. 사이버보안은 업체 수 측면에서는 기술 혁신 생태계의 작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라운드와 자금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펀딩 라운드 수와 자금 조성 규모는 2014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다.

과거 몇 년과 대조적으로 펀딩 규모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히 소수의 대규모 펀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투자 규모가 5000만 달러를 넘은 거래는 단 3건으로 2018년 총 투자액의 15% 미만을 차지했다. 이는 3건의 거래가 총 연간 투자액의 40%를 차지한 2017년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주요 투자 거래로는 클라로티(Claroty, 6000만 달러), 빅아이디(BigID, 거래 2건에서 4400만 달러), 데미스토(Demisto, 4300만 달러) 등이 있다.

2018년 투자 회수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6건의 규모만 4억 18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전과 비교하여 투자회수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곧 초기 투자회수보다는 보다 프라이빗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헬스케어 (Healthcare)



헬스케어 시장에는 1,200개 이상의 혁신 기업들(디지털 헬스업체 약 400개, 의료장비업체 500여개, 제약업체 200여개)과 더불어 산업 중심적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다국적기업 R&D 센터, 정부 및 학계 이니셔티브 등이 운영 중이다. 2018년 이스라엘의 혁신 헬스케어

기업들은 약 9억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다수의 전략적 투자회수를 수행했다.

2018년 이스라엘의 헬스 케어 관련 기술은 전체 기업의 24%, 총 펀딩 라운드 수와 자금 조성액은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총 투자 유치 금액은 디지털 헬스 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반해 제약 및 의료장비 업체 투자는 감소함에 따라 2017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위값은 400만 달러 미만으로 사실상 전년 대비 차이가 없다. 최대 규모 투자건은 의료 장비 제조업체 브이 웨이브(V Wave, 7000만 달러), 진단장치 전문 업체 미메드(MeMed, 7000만 달러), 바이오제약업체 89바이오(89Bio, 6000만 달러) 등이 있다.

최대 규모 투자회수는 필립스 헬스케어(Philips Healthcare)가 EPD 솔루션즈(EPD Solutions)를 2억 9200만 달러에 인수한 사례였다. 또한 2018년은 순수 디지털 치료법에 대한 최초의 투자회수가 이루어진 한 해로 메드트로닉(Medtronic)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 제공업체인 뉴트리노(Nutrino)를 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2018년 최대 규모 인수 합병 (출처 : 스타트업네이션 센트럴)

③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2018년은 핀테크 부문 투자에 있어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한 해였다. 이스라엘 핀테크 기업들은 거래 82건에서 8억 32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는 2017년 총 자금조성액의 두 배 수준이다.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핀테크 분야의 후기 단계 및 초기 단계 투자 중위값은 각각 3000만 달러와 310만 달러로 대폭 상승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주요 기업 세 곳이 2018년 총 자금조성액의 30%를 차지했는데, 소셜 트레이딩 및 투자 플랫폼 이토로(eToro, 1억 달러), 중소기업 대상 보험업체 넥스트 인슈어런스(Next Insurance, 8300만 달러),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플랫폼 블루바인(Bluevine, 거래 2건에서 7200만 달러)이 있다.

2018년에 이스라엘 핀테크 업체들은 전체 기업의 7.5%, 총 펀딩 라운드 수의 13%, 총 자금 조성액의 14%를 차지했다. 2014년 대비 펀딩 라운드 수는 74% 증가하였으며 기업 수 및 총 자금조성액도 40% 증가했다.

2018년 핀테크 분야의 투자회수 건수는 8건으로 지난 4년 간 최대치다. 주요 투자회수로는 그럽허브(GrubHub)가 1억 5000만 달러에 타핑고(Tapingo)를 인수한 사례,페이유(PayU)가 8000만 달러에 주즈(Zooz)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

④ 운송 (Transportation)



지난 10년간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동차 산업의 범용화를 피하는 공유 서비스 업체(예. 구글, 우버)와 데이터와의 싸움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흐름으로 자동차 업계는 데이터와 통신기술 위주로 움직이게 되었다.

2018년 말 기준 자동차 산업에는 517개 업체들이 속해있으며 전체 기업의 8%를 차지하고 2014년 대비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 자동차 부문 업체들은 총 펀딩 라운드 수의 약 10%, 총 자금조성액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투자 규모가 1000만 달러를 넘는 거래 건수가 25개에 육박하면서 펀딩 라운드 수가 2014년 대비 무려 81% 상승했다. 최대 규모 펀딩 라운드는 게트(Gett, 8000만 달러)가 기록하였으며 발렌스(Valens, 6300만 달러), 무빗(Moovit, 50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총 자금 조성액은 7억 530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이스라엘의 운송 산업 생태계는 업계 전용 VC 펀드를 비롯하여 포드, GM, 혼다 등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 액셀러레이터 등을 토대로 번성하고 있다. 2018년에는 파크위즈(Parkwhiz)가 주차 문제 향상을 목표로 R&D 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폭스바겐(Volkswagen)이 후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코넥트(Konnect)도 2018년에 문을 열었다.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크래들(CRADLE)이 지난 5월 개소하면서 새로운 해외 벤처를 맞이하게 되었다.

< 출처 >

1) Start-Up Nation Central: Finder Insights Series 'The State of the Israeli Ecosystem in 2018'

2) https://innovationisrael.org.il/en/sites/default/files/2018-19_Innovation_Report.pdf

3) 이스라엘 자동차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 롤랜드 버거 보고서 참고.

★ **관련문의처: 이스라엘 거점 진수미 소장** (T:+82-2-6009-8247 , E: susan74@koril.org)